

* 동창회 소식

◎이화여대 동창회 송년의 밤 개최



이화의대동창회는 12월 6일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윤건일 의료원장, 한운섭 학장, 서현숙 목동병원장, 연규원 동대문병원장과 동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김화숙 회장은 “참석해주신 동창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히고 “참여와 관심 속에 화합하는 이화의대 동창회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동창들은 직접 가지고 나온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하여 장학금을 마련하는 등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였다.



◎김화숙 회장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2000만원 기부

김화숙 동창회장은 의학전문대학원 발전 기금으로 2000만원을 기부했다. 김회장은 “보다 많은 동창들이 발전기금 후원으로 여성의학교육의 최고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24회 동기 회원 일동도 10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 해외교수 동정

- 연구년을 다녀와서 -

해부학교실 이화영



어느덧 또 다시 찬바람과 함께 한 해를 세월 속으로 흘려보내고 있음을 느끼면서, 이보다 더 매서운 찬바람속에 출근 기차를 기다리던 바로 일 년 전의 겨울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노스웨스턴 병원과 의과대학은 미국 시카고의 변화가 중심부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과 시카고를 대표하는 여러 빌딩들 사이에서 이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하고 있다. 의과대학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미시간 호수는 여름을 제외하곤 일 년의 대부분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냉혹한 바람을 만들어와서, 특히 이맘때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한채 팔에 끈 도시락 가방을 휘날리면서 웅크리고 걷던 출퇴근길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저 우리나라의 아담하고 예쁜 호수에만 익숙했던 탓에 지도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호수를 수시로 바다로 착각하고 있었다.

두 개의 건물이 서로 연결된 ㄷ자 모양의 의과대학 건물은 겉으로 보기와는 다르게 그 내부는 항상 다닌던 통로가 아니면 실험실을 못 찾아 갈만큼 복잡한 미로형 구조를 하고 있다. 아마도 빈 공간 없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4층부터는 department of cell & molecular biology에 속하는 교수들의 연구실과 실험실이 있으며, 최근 이를 확장, 바로 앞쪽에 건물을 신축하여 가장 연구비가 많은 교수의 실험실이 우선적으로 이사를 하였다. 건물 내에서 실험실의 크기는 교수가 확보한 연구비와 비례하며, 따라서 언제든지 축소 또는 확대될 수 있어서, 실제로 머무르는 동안 일하던 실험실이 올해 초에 바로 옆의 실험실을 밀고 확장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였다. 초기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실험실내 안전에 관한 원리, 원칙이 연구원들 모두에게 중요하게 인식, 이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학교 차원의 관리가 상당히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었다. Cell & molecular biology department 내에는 35명가량의 교수들이 속해 있으며, 대학원생들의 연구진행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발표를 통해서 각 실험실 간에 학문적인 교류가 연구주제별로, 또한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새로운 faculty 자리에 지

♣ 의과대학에서 알려드립니다 ♣

◎2006년 의학과 진입식에 학부모 초청

2006년 3월 2일 김옥길홀에서 열릴 예정인 의학과 진입식에 의학과 1학년 학생의 학부모님을 초청하오니 학생과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추후 시간 공지)

◎의대소식지 원고 모집

의대소식지는 분기별(3/6/9/12월) 발행되며,소식지에 실을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의대 행정실(담당:이희정, heeje77@ewha.ac.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의대 소식지는 의대 홈페이지 (medicine.ewha.ac.kr) 내 의과대학소식/뉴스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대동창 주소 변경 문의(동창회 사무실 T.2650-5782)

원한 후보자들이 department 내 모든 교수들과 실험실의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발표가 1-2주의 간격으로 지속되고 있다.

연구년 기간 동안 일하던 실험실은 30년 이상을 Alzheimer병의 tauopathy 연구에 집중해오면서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의 위치와 명성을 확보한 교수 2명이 이끌어가고 있는 곳으로, 노스웨스턴 병원을 비롯하여 주변 여러 병원의 Alzheimer center와 연계하여 시료를 확보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면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실험실에서는 새로운 항체의 개발을 위주로 하는 분자생물학적 연구와 개발된 항체를 이용한 세포조직화학적 연구에서의 형태학 연구, 그리고 이와 동시에 세포수준에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in vitro 연구가 분리, 병행되는 상당히 이상적인 연구체계를 이루고 있었으며, 부러울 만큼의 고가 연구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 실험실의 구성원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특성에 걸맞게 미국, 중국, 인도인 등이 고루 섞여 있었으나, 이전에 듣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가족적인 실험실 분위기에 오히려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실험실 앞 cold room에 시약들과 함께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맥주박스와 와인병 들에 더욱 놀랐다. 여름에는 샌달과 반바지로 출근하며, 떨리는 손으로 pipet을 잡는 60세가 훌쩍 넘은 지도교수의 모습과 사람이 많아 빈자리가 없는 세미나에서는 서슴없이 바닥에 앉는 수염과 머리가 하얀 노교수들, 문화적 차이로 넘겨버릴 수도 있으나, 어쩌면 만능적 권위주의가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우리에게 조금은 생각하게끔 만드는 모습들이 아닐까 싶다.

얼마 전 성탄절을 지내면서 작년 미국에서 맞던 성탄절의 장면이 마치 오래된 영화처럼 머리에 스쳤다. 실험실 사람들 모두 모여서 반짝이는 불빛으로 장식했던 실험실 복도, 지도교수의 집에서 열렸던 난생 처음 경험한 미국식 파티, 그리고 그 파티에 가지고 가려고 태어나서 처음 요리책보면서 혼자 만들어 본 잡채... 이와 함께, 시카고 시내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던 탓에 유난히 눈이 많이 쌓인 조용한 시골 마을과 집집마다 경쟁하듯 앞마당에 장식된 이색적인 트리와 불빛의 조화로움에 감탄했던 장면들을 어느새 언어소통에서 부딪혔던 서러움과 힘들었던 몇 가지 아픈 기억들을 누르고 먼저 떠올릴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발행인·한운섭 편집인·정성철 발행·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1-1 전화·02-2650-5707 팩스·02-2653-8891 제 6 호 <2005.12>

*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소식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개발 워크숍 개최 -교육과정 개편 중간보고 및 전체 교수 송년회-

‘2005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개발 워크숍’이 12월 26일 오후 5시 30분 의학관A동 김옥길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워크숍은 한운섭 학장의 “교육과정 개편은 모든 교수들의 노력을 필요로 하며 의학교육의 공급자 뿐 아니라 수혜자의 입장에 함께 고려하여 모범이 되는 의학교육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이어진 교육과정 개발과정 보고에서 이순남 교수는 “전체적인 교육과정의 틀은 1학년 장기-기능 중심 기초통합, 2학년 계통 중심 기초-임상 통합, 3학년 핵심임상실습, 4학년 선택임상실습, Integrated Medicine, 특성화 선택과정 및 진료탐색과정의 틀에 전 학년에 걸친 PDS(Patient-Doctor-Society)과정이며 임상은 조기 노출을 원칙으로 하여 1학년부터 ICM(Introduction to Clinical Medicine)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과정위원회 산하 핵심 4개 소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먼저 기초의학소위원회 발표에서는 박혜영 위원장이 1학년 통합교과목을 Molecules&Cells, Gross Anatomy&Embryology, Human Organ System 등 8개로 구분하고 각 교과목 책임 교수를 제안하였다. 이어 기초임상통합소위원회 성연아 간사는 계통별,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학습목표, 미국의과대학 교과과정 등을 기준으로 검사/처치, 감염, 알레르기/류마티스 등 13개의 통합교과목으로 분류하고, 하루 5교시 수업, 기초-기초 통합(1학년 과정)에서 다른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PBL(Problem Based Learning), TBL(Team Based Learning) 등의 비강의식 수업 방식의 의무화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임상의학소위원회 김경호 위원장은 임상 실습 기간의 연장, 임상의학 입문 과정의 도입, 자유 선택 실습 과목의 다양화와 기간의 연장 등 3가지 주요 교육과정 변화에 관해 말하였다. 임상 실습 기간은 현재의 1년 6개월에서 약 2년 정도로 연장되어 3학년 1학기에 임상 실습이 시작되며, 임상 의학 입문 과정은 1학년부터 PDS 프로그램 중에 실시되며, 1학년은 임상입문과정 ICM-I 과 ICM-II, 2학년은 ICM-III 와 ICM-IV로 진행된다. 한편 2학년이 끝나고 3학년 시작하기 전에 IC(Introduction for Clerkship) 과정이 현재의 임상 실습 오리엔테이션을 발전시켜 도입될 예정이며 3학년과 4학년 중 실시되는 임상 실습은 현재의 임상 실습 내용과 방법을 좀 더 질적으로 발전시키고 동시에, 자유 선택 실습의 교과목 선택의 폭이 다양화되고 기간도 최소 8주 이상으로 연장되어 해외 실습 선택도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국가고시에는 현재의 필기시험과 함께 실기시험이 도입될 예정이므로 이를 준비하기 위한 OSCE, CPX, 모의국시 등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어 PDS 소위원회 권복규 위원장은 각 학년별 PDS수업 내용을 제안하였다. 1학년 PDS는 의학이란 무엇인가·인간의 이해·의사-프로페셔널리즘·환자-가족-의사를 주제로 강의·소그룹토의·PBL 등을 진행하고, 2학년은 지역사회의학·의료정책과 경영·환경의학·EBM 등의 수업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3학년은 임상 clerkship을 통해 프로페셔널리즘과 리더십을 익히도록 하고 EGR(Ethical Grand round)을 통해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윤리 이슈를 논의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하며, 4학년은 산업의학·의료법·의료정보·각 elective course (의료와 선교, 의료와 영성 등) 등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진 전체 토론회에는 이와 관련하여 교수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2월 전체 교수 워크숍 이전까지 교육과정에 관한 전체 교수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공고하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하은희 교무부장이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시기와 맞물려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되는 ‘교수 업적 평가의과대학 기준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어진 식사 시간에는 송년회가 진행돼 전체 교수들이 2005년을 보내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맞아 의학교육학 교실 설립 -의학교육학의 원활한 수행 및 의학교육학 연구 가능-



2007년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맞이하여 의학 교육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의학교육학 교실이 설립되었다.

이번 의학교육학 교실 설립은 2단계 의과대학 인정평가 대비를 위해 학술적 목적의 의학교육을 연구하는 전문부서의 설치가 유리하다는 점, 2주기 BK21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 설립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의학교육학 교실은 향후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수행 및 학술적 지원, 의학교육학의 학문적 연구, 학문 후속 세대 양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 개발 관련 2005 하반기 해외시찰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5명의 이화여대 교수가 11월 4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05 AAMC Annual Meeting에 참여하였다. 이번 일정에는 이순남 교수(교육과정위원회 위원장)·박혜영 교수(기초소위원회 위원장)·이경은 교수(기초임상통합소위원회 간사)·최희정 교수(기초임상통합소위원회, 임상소위원회 위원)·어은경 교수(OSCE&CPX, PDS소위원회 위원)가 함께 하였다.

* 대외협력위원회 활동소식

◎의과대학생 위한 '이학해·변중수 장학금' 설립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이화의학 동창 이학해 동문(1960년 졸업)이 남편 변중수씨와 함께 '이학해·변중수 장학금'을 설립하였다. 이 장학금은 약 100,000달러이며, 향후 2007년도부터 발생하는 이자액은 매년 의대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화의학대 선교 후원 기금 각 계로부터 모아져

2005년 이화의학대 선교 후원을 위한 기금이 각 계로부터 모아졌다. 이화총동창회선교부에서 600만원을, 변재일 국회의원은 500만원을 기금으로 후원하였다. 이어 남가주의대동창회에서는 11명의 의대 동창들이 8,100달러를 모아 의대에 전달하였다. 이화총동창회선교부와 변재일 국회의원의 후원금은 의학과 8동 기도실 공사 및 운영 기금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남가주의대동창회 후원금은 재물을 위한 김옥길 홀 피아노 구입 및 2006년 우즈베키스탄 의료 선교를 위한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한편 남가주의대동창회 이(안)정옥 선생님은 크리스천 여성 리더십 교과과정 개발비로 1,100달러를 후원한 바 있다.

<의학전문대학원발전기금 및 가족사신축기금 모금 현황> (가나다 순)

60,000,000	의학과 23기
20,000,000	박영옥, 김화숙
15,000,000	이경은, 하은희, 한운섭
10,000,000	강은숙, 구혜수, 김세연, 김중오, 김치효, 박미혜, 박수연, 박은애, 박혜경, 박혜숙, 박혜영, 서정완, 성연아, 성주명, 신규만, 유경하, 유 권, 이경자, 이미애, 이지수, 이지희, 이진화, 이청기, 이홍수, 이화영, 정락경, 정성민, 정성철, 정영혜, 정우식, 정지향, 정혜원, 정화순, 조영주, 조종남, 최경규, 최규복, 최보원, 최혜영, 한후재, 허정원, 의학과 24회 등
5,000,000	강병철, 김경효, 김명래, 김명현, 김승철, 김영주, 김영철, 김유경, 김혜순, 박성훈, 박시훈, 심경원, 심기남, 어은경, 오세관, 오지영, 유은선, 이귀용, 이레나, 이선화, 이승주, 이시내, 이주호, 임수미, 장중현, 정성애, 최유원, 최희정, 한종인 등
3,600,000	김광호
3,000,000	김용재, 문병인, 이경아
1,100\$	이(안정옥)
1,000,000	이흥동
총 액	754,738,050원

<이화의학대 선교후원 기금 현황>

(가나다 순)

8,100\$	남가주의대동창회(장현자, 최인규, 이(안)정옥, 고순정, 정명희, 조호경, 김명미, 김정희, 권영혜, 홍정자, 강정애
6,000,000	이화총동창회선교부(성혜옥, 방채임, 박은영, 안희정, 주금란, 이화총동창회선교부)
5,000,000	변재일
1,000,000	하은희
총 액	754,738,050원

* 의과대학 새소식

1. 의과대학 소식

◎2005 서울시 사업 3개 과제 선정



서울시 사업 선정에 이화의학대가 3개 과제를 신청한 결과 선정 과제가 모두 선정되었다. 먼저 서울시 산학연 정책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서울형 미래도시산업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이화의학대(총괄책임자 하은희 교수)가 '의료시스템 및 네트워크' 분야에서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되었다. 과제명은

'저출산율 시대에 대응하는 출생코호트 네트워크를 이용한 서울시 모자보건사업'이며, 총 참여 인력은 의대교수 8명(예방의학2, 산부인과 2, 소아과4)·식품영양학과 교수 1명·공대 교수 1명 등 총 30명이다. 하은희 교수와 연구팀은 향후 5년 동안 연간 2억 씩 지원받게 된다.

또 서울시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의 최종사업자로 이화의학대가 '나노바이오칩' 분야와 '영상시형, 진단관련' 분야에서 선정되었다. 먼저 '나노바이오칩' 분야에서는 최병욱 교수와 그 연구팀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금을 내년부터 2년간 총 1억 9000만원 지원받게 되었다. 이번에 지원받게 되는 프로젝트는 '모체혈액을 이용한 태아 유전질환 검사법 개발'로 보통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융모막 검사나 양수검사 등의 침습적인 방법을 써야 하지만 이 방법이 개발되면 임산부의 혈액을 채취하여 비침습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아기의 유전질환을 진단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화봉사단, 우즈베키스탄 해외의료봉사 예정



이화봉사단이 2006년 2월 3일부터 14일까지 11박 12일동안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로 해외의료봉사를 떠날 예정이다. 봉사단은 최혜영 교수(진단방사선과)를 단장으로 하여 성주명 교수, 정구영 교수, 하은희 교수, 김한수 교수 등 교수 5명과 학생 12명(의학과 7명, 본교생 5명), 의료원 직원 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2월 1일 발대식을 가진 후 우즈베키스탄으로 출발할 예정이며 그곳에서 일반 및 특별 진료, 지역사회 보건 활동 및 선교단체 연계 탐색, 향후 지역보건사업 후보지 물색, 문화 탐방 등을 할 계획이다. 이번 해외의료봉사는 특별히 남가주 의대 동창회에서 일부 후원을 받게 되어 더욱 뜻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에서의 professionalism 심포지움 개최



'의학에서의 professionalism 심포지움'이 10월 26일 의학과 8동 814호에서 이화의학대 의학교육실, 고려의학대 의학교육학교실 주최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재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Dr.Klass(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회)의 'self regulation' 특강과 강윤식 교수(경상대의)의 '한국에서의

professionalism개념과 논의', 권복규 교수의 '한국의 professionalism 교육 현황'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후에는 고려의학대 안덕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2006년 의사국가시험에 이화의학대 총 83명 접수

2006년 1월 10일, 11일 서울 송파구 영파여고에서 치뤄지는 의사국가시험에 이화의학대는 총 83명(졸업생 4명 포함)이 접수하였다. 한편 이를 준비하기 위해 타 대학과 연계하여 국시대비 모의고사가 1차는 지난 10월 17일과 18일에, 2차는 10월 31일과 11월 1일에 진행되었다.

2. 학생 동정

1) 학부

◎2006년도 1학기 개강 일정

의학과 1학년	의학과 2학년
2006년 3월 2일(목)	2006년 3월 2일(목)
의학과 3학년	의학과 4학년
2006년 2월 13일(월)	2006년 1월 2일(월)

◎의학과 2학년 학생 4명, LG글로벌챌린저 우수상 수상



이화의학대 의학과 2학년 학생 4명으로 이루어진 '기.찾.길'(기억을 찾는 길)팀이 2005년도 LG글로벌챌린저 자연과학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지윤, 박지현, 조가은, 조현아 학생으로 이루어진 '기.찾.길'은 대학

◎진료봉사동아리 MFC 이울진료회, 아산상 수상

진료봉사동아리 MFC 이울진료회가 11월 25일 열린 제 17회 아산상 시상식(아산사회복지재단 주최)에서 청년봉사상을 수상하였다. 이울진료회는 지난 방학에도 강원도 평창군에서 하계 의료봉사를 갖는 등 모범이 되어왔다.

2) 대학원

◎2006학년도 대학원 전기 입학전형 관련

2006학년도 전기 대학원 입학전형 결과 석사과정 45명, 박사과정 21명, 통합과정에 2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3. 교수 및 의료원 동정

1) 교수 동정

◎한운섭 학장, 한국과대학장협의회 부회장 선출



◎하은희 교수,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예정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에 하은희 교수가 등재된다. 하은희 교수는 '마르퀴즈 후즈 후'의 분야별 세계인명사전인 과학기술부문 세계인명사전의 2006-

2007(9th)판에 등재될 예정이다. 마르퀴즈 후즈후는 세계 215개국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예술·의학 등 각 분야 저명 인사를 선정, 이력을 소개하는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이다.



◎하종식 교수, 대한생리학회 신임회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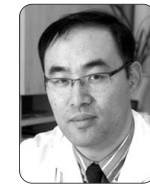
10월 20일에서 21일 양일간 무주리조트에서 개최된 제57차 대한생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하종식 교수가 대한생리학회 신임 회장에 취임하였다.

◎김승철 교수, 부인종양·콜로스코피학회 학술상 수상



김승철 교수는 11월 25일 열린 대한부인종양·콜로스코피학회에서 지난 1년간 학회에 발표된 논문 중 최고의 논문으로 선정되어 학술상을 수여받았다. 김교수의 논문은 '자궁내막암에서 현미부수체 및 hMLH1,hMSH2,BAX발현'에 관한 연구이다.

◎주웅 교수, 젊은 산부인과 의사상 수상



주웅 교수가 제 19차 아시아 오세아니아 산부인과 학술대회에서 '젊은 산부인과 의사상'을 수상했다. 주웅 교수는 '한국 여성의 상피성 난소암과 기질 근육단백 분해효소와의 연관성'이라는 내용의 연구로 수상하였다.

2) 의료원 동정

◎이대목동병원 개원 12주년 기념식 개최



이대목동병원은 10월 6일 개원 12주년을 맞아 목동병원 로비에서 개원기념식을 가졌다. 윤건일 의료원장은 "목동병원이 개원 후 보여준 놀라운 성과는 모두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룬 결과"라며 축하하였다. 또 서현숙 원장은 "여성 질환센터를 개설해 여자대학부속병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전문의료기관이 될 것"이라면서 이대목동병원의 지향점을 밝혔다.

◎이대동대문병원 방사선과, 서울시협회 모범병원 선정

이대동대문병원 방사선과는 11월 25일에 개최된 서울시 방사선협회 정기총회에서 꾸준한 논문발표와 의료기술향상에 남다른 관심으로 협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커 모범병원으로 선정되었다.

◎앞 못보는 몽고소년의 도운 '사랑의 인술'



이대목동병원이 앞을 못보는 몽고의 어린 소년을 초청, 각막이식 수술을 통해 사랑의 인술을 베풀었다. 최규룡 교수는 지난 5월 몽골 바가노르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하던 중 좌안 각막혼탁과 외상성 백내장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고 그로 인해 나머지 눈마저 점점 시력이 약해지고 있는 몽고 소년 오랑치맥을 진료하고 각막이식으로 다시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목동병원은 오랑치맥에게 수술비와 입원비를 지원하였으며, 그 밖의 여러 단체·병원·교회에서 각막구입비용과 체류비 등을 지원하였다.